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전남 영농형 태양광발전 가동

54억원 투입...영광 월산마을, 태양광 발전단지 1단계 준공식
3MW 중 1MW 우선 가동...주민 28가구에 연간 142만원 지급

영광군 염산면에 전국 최초로 마을 주민이 주도해 조성한 3MW(메가와트)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염도가 높아 농사가 어려웠던 염해간척지에 주민이 주주로 직접 참여했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의 전력 판매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이날 가동을 시작한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규모는 물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산업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8일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가 주관해 사업 부지 공모와 선정 작업에 착수한 사업으로, 3년여 만에 영광군과 월평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상업 가동에 성공했다.

총 54억원이 투입된 월평마을 태양광 발전단지는 마을 내 염해간척지 5만여㎡를 활용해 3MW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조성된다. 이날 1MW 상업 가동을 시작으로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에 나머지 2단계(2MW)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에 22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사업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평균 60kW 수준인 소규모로,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

광의 경우 발전용량(MW급)과 상업 가동 면에서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태양광이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2년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주식 52%를 확보했다. 조합이 직접 사업주체로 참여해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원주민 사이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다. 주민이 직접 주주에 참여해 전력 판매수익을 토지 소유자,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나눈다. 월평마을 주민 28가구의 경우 매월 11만8000원, 연간 142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0.2REC도 지급받는다.

전남도는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이 전국 최대 규모의 상용화 모델로, 앞으로 실증효과를 통해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월평마을 태양광 상업가동을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을 전남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일 작업자들이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노후화된 관람석의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챔필 노후 관람석 교체...“안전하게 야구 관람하세요”

8월까지 경기 없는 날 단계적 진행...1만6294석 전면 교체

KIA타이거즈 홈 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노후화된 관람석 의사 교체작업이 시작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부터 시작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관람석 교체작업이 8월까지 진행된다. 노후 관람석 1만6294석이 8월까지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일반 관람석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지난 3~4월 기존 관람석 틀에 맞는 금형 제작을 추진해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람석 금형을 완성했다. 완성된 관람석의 디자인과 색상은 동일하지만,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관람석보다 좌판과 등판, 컵홀더 크기를 확대했다.

당초 4월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창원NC파크 사고에 따른 구장 점검으로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 원정경기가 홈경기로 대체됨에 따라 다소 늦어졌다.

교체 작업은 3루측 타이거즈 가족석·K5석을 시작으로 3루측 K8·K9과 중앙테이블석, 1루측 K9·

K8·K5-타이거즈 가족석, 가장 위층에 있는 EV석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교체 작업량은 200여석으로, 일반 관람석 전면 교체는 8월까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기아팬과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가 없는 날 교체 작업을 진행해 관람과 경기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팬들이 새 관람석에서 산뜻하게 KIA 야구를 즐기시길 바란다”면서 “올해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가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영광,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우뚝

해상풍력·태양광 생산 최적지 꼽혀

영광군이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생산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이익 공유 순환형 경제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새정부 출범 후 영광군이 서남해안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특히 영광군은 40년 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수용,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유했던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임하자마자 기본소득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12월에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제정되며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영광군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257억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군민 5만1459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어 5월에는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제정됐고, 7월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년간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에는 도비 208억원과 군비 312억원 등 총

520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최근 1년 사이 인구가 1200여명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1.71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연간 일사량 4.0~4.2kWh/㎡, 평균 풍속 6.0m/s 이상의 조건을 갖춘 영광군이 해상풍력, 태양광에너지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어서다.

정치적 정당성도 뒷받침되면서 영광군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당시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영광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서남해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산지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의 균형 있는 재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영광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제시했다. 장세일 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가능성이다. 이제 그것을 지역의 미래로 전환해야 하며, 영광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실현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해야 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2년 연속 ‘전국 1위’

정성평가 2건도 우수사례 선정

전남도는 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전년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정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년 연속 정량평가 1위를 달성한 건 전남도가 유일하다.

올해는 정량 지표(목표 달성도 평가) 97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7개 등 총 114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정량 지표에서 청사 에너지 절감률과 지방 물가 안전관리 실적,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우선 구매율 등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해 지난해에 이어 목표를 100% 달성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2건이 우수사례로 선

정됐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전남도, 시군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이러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